

[ 현안진단 37호]

이스라엘/하마스-헤즈볼라전쟁

홍미정(한국외대 연구교수, 프레시안 기획위원)

- I.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
- II. 이스라엘의 하마스 정부 붕괴 시도
- III.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헤즈볼라
- IV. 하마스와 헤즈볼라 저항 운동의 토대
- V. 미래전망

I.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가?

이번 전쟁에서 7월 27일까지 팔레스타인인 140여명, 레바논인 600여명, 이스라엘인 50여명이 사망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을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무장단체들이 6월 25일 이스라엘 군인을 납치함으로써 유발하였다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6월 9일 이스라엘 해군이 가자 해변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10명을 학살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에 하마스는 6월 10일, 16개월 지속된 휴전을 철회하였다. 이후 계속된 교전 과정에서 15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에 다시 휴전을 제의했지만, 이스라엘은 즉각 제안을 거부하였고 교전이 계속되었다. 이 과정에서 25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 점령지인 가자 지역에서 이스라엘 병사 1명을 생포,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0,000 여 명 중 여성 및 미성년자들과 맞교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 사태는 7월 12일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생포하면서 확대되었다.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병사와 이스라엘 감옥의 레바논인과 팔레스타인인들을 맞교환하자고 제의함으로써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와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레바논 영토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헤즈볼라의 제안을 무시하였다. 헤즈볼라 대변인은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을 목표로 한 이스라엘 군인 생포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특수부대 정도를 투입할 것을 예상했고, 이렇게 무자비한 폭격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은 이스라엘의 전쟁 준비 계획에 휘말려들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전쟁의 전개 과정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계획, 추진하면서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넘어 레바논으로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포로 교환이라는 동일한 목표로 연대하고 있다. 7월 30일 현재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이 1967년 이후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한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선제공격으로 촉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미디어들은 점령 문제는 도외시한 채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생포를 이 전쟁의 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공격자와 방어자가 뒤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하마스와 헤즈볼라가 요구했던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 문제는 서구 미디어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국제사회는 전쟁 중지의 선결 조건으로 3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의 석방을,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무장해체를 요구한다.

II. 이스라엘의 하마스 정부 붕괴 시도

2006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이슬람주의자인 하마스가 의회선거에서 다수의 의석을 획득함으로써 정부를 장악하였다. 이번 전쟁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청사를 비롯한 점령지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공격과 하마스정부 각료와 의회 의원 22명의 체포 구금은 하마스정부 해체를 당면 목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공세적인 정책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정치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지속적이고 오랜 거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의 근거로 내세우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의 이스라엘 병사 생포는 단지 이번 공격의 빌미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2000년 9월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을 동반한 제 2차 팔레스타인 민중봉기는 2003년 이후 점차 소강상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 동안에도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은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되어왔다. 서안 곳곳에 철옹성 같은 검문소를 설치하고, 분리장벽 건설과 정착촌 건설을 강행했다.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야만적이고 공세적인 점령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파타가 주도한 자치 정부에게 물었으며, 그 결과 하마스가 눈부신 승리를 하면서 중동 아랍권 최초로 팔레스타인 이슬람 정부를 창출했

다.

하마스 정부는 팔레스타인 전 영토의 22%(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로 구성되는 이 영역은 현재 국제법상으로 불법 점령지이며, 1988년 PLO는 이 영역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을 선언하였다.)에 민족 국가 수립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스라엘과의 협상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현 이스라엘 국가 영역(팔레스타인 전영토의 78%)을 제외한 1967년 6월 전쟁 이전의 휴전선으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의 국경을 획정할 것, 이스라엘 정착촌의 완전한 철거, 동 예루살렘의 주권 회복, 1948년 점령된 땅(현 이스라엘 국가 영역)으로부터 추방된 난민을 포함하는 500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 난민 귀환, 10,000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 군의 완전한 철수다.

하마스가 내세운 이 협상주제들은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며, 팔레스타인인들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이 주제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계속 주장해 왔다. 1991년 마드리드 국제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대표 하이다르 압둘 사피와 파이잘 후세이니 등이 하마스가 내세운 협상 주제를 이미 제안하였다. 이들은 임시 협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면서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1993년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을 마흐무드 압바스와 야세르 아라파트로 대체하였다. 마드리드 협상이 중지되고 오슬로 비밀 협상이 시작된 것이다. 오슬로 협상이 비밀 협상인 이유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마드리드 협상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협상 채널을 비밀리에 가동시켰기 때문이다. 오슬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은 마드리드 팔레스타인 협상자들이 내세운 협상 주제들을 최종 지위 협상으로 미룬 채 임시 협정의 개념을 수용하면서 이스라엘과 오슬로 협상을 시작하였고,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수립하였다. 자치정부/이스라엘 협상의 최후 국면인 2000년 최종 지위 협상에서 자치정부 협상자들은 앞선 마드리드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대표들이 제안했던 주제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시도했으나, 이스라엘은 끝내 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 창설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실망한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자살 폭탄 공격을 동반한 제 2차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를 주도하였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은 분리 장벽을 쌓기 시작했고, 자살 폭탄 공격을 주도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즉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PFLP, DFLP, PPP, 알 아크사 여단’ 등을 ‘테러 단체’로 지목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게 이 단체들을 분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구상은 이스라엘 총리 아리엘 샤론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수반인 마흐무드 압바스의 협상에 반영되었고, 2003년 6월 ‘로드맵’ 협상에서 구체화되었다. 로드맵은 당시 위기의 원인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들의 대 이스라엘 무장 공격'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무장 공격의 전제가 되는 '이스라엘의 공세적이고 야만적인 점령 정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로드맵'은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하여 자신들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결성된 팔레스타인 무장 저항 세력들을,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테러리스트'로 지목하였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게 무장단체 해체를 요구하는 '로드맵'은 자치정부를 통해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해체시키기 위한 이스라엘 전략이다. 그러므로 '로드맵' 구상이 실현될 경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보안군과 무장단체들 사이의 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같이 가장 최근의 협상 결과물인 '로드맵'은 이스라엘의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목표로 한 하마스 정부 붕괴는 이러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진 오래된 점령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새로운 돌발적 상황이 전혀 아니다. 2006년 하마스 정부 수립 이후 '로드맵'의 구상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가자 지역에서 자치정부의 주요 세력이었던 파타와 하마스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더 이상 서안 지역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의 암묵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타가 하마스를 제압할 수는 없었을 뿐만 아니라, 6월에는 하마스 자치 정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제시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구상을 위한 통합된 하나의 협상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위에서 밝힌 하마스의 정부의 목표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마스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였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하마스 정부 붕괴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이번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목표다.

III.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과 헤즈볼라

군사 훈련과 무기 제공 등을 통해서 하마스를 지속적으로 후원해온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했을 때 이란의 지원으로 창설된 이슬람주의자 단체다. 이 때 이 단체는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대의로 내걸었다. 헤즈볼라는 창설이후 레바논 주둔 프랑스와 미군 사령부를 공격함으로써 약 300명의 군인을 살해하였고, 프랑스군과 미군은 즉각 철수하였다. 또 이스라엘군과 교전을 벌여 2000년에는 이스라엘군을 철수시켰다. 이후 남부 레바논은 헤즈볼라의 영역이 되었다. 남부 레바논에는 1948년 이스라엘/아랍 전쟁에서 이스라엘 국가 영역으로부터 추방된 팔레스타인인들과 1967년 전쟁에서 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로부터 추방된 팔레스타인인들이 밀집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헤즈볼라의 절대적인 후원자들이다. 이것이 헤즈볼라가 팔레스타인 해방이라는 대의를 적극 내세우

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5년 6월 총선에서 헤즈볼라는 8명의 의회의원을 당선시켰고, 2명이 내각에 진출하는 등 제도권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다.

UN 인권 관련 보도 매체인 IRIN에 따르면, 현재 헤즈볼라/이스라엘의 분쟁이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이라는 점에 레바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는 팔레스타인 난민촌이며, 2006년 7월 12일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은 이 지역들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레바논에는 42만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레바논 주민의 약 12%를 구성한다. 이들은 1948년 1차 중동전 때 현재 이스라엘 영토와 1967년 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이 점령한 동 예루살렘, 서안, 가자로부터 추방된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며, 12개의 공식 난민 캠프와 15개의 비공식 난민 캠프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시리아 등 주변 아랍국의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비교했을 때, 최악의 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레바논 정부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는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레바논 내에서 이들의 지위는 불안정하다.

1948년 유엔 총회 결의 194호는 모든 난민들이 귀향할 권리, 그들의 이웃과 평화롭게 살 권리, 귀향하지 않는 난민들에게는 재산에 대한 국제법과 평등의 원칙하에 해당 정부가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레바논 정부는 1959년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의 주택 건설을 금지시켰고, 1962년에 팔레스타인인들을 외국인으로 분류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에는 군법을 실행시켰다. 1967년 이스라엘/아랍 전쟁에서 아랍의 패배는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에서 팔레스타인의 무장 투쟁을 활성화시켰다. 이 때 대부분의 레바논인도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투쟁을 레바논 정부가 후원하도록 요구하면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는 레바논 정부에게 위기로 여겨졌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정부가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을 통제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1968년 대규모의 1차 레바논 침공을 강행하였다.

1970년 PLO 본부가 요르단으로부터 남부 레바논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PLO는 이 지역에서 급속하게 정치 세력을 강화해 나갔으며 레바논 좌파들과 재정적, 군사적으로 연대하면서 ‘국가 안의 국가’로 위치를 확립해 나갔다. 이 때 PLO는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인들과 우파들과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한 PLO의 공격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1974년 이스라엘 공군은 남부 레바논의 나바티야 난민 캠프를 공격하였고, 이에 따라 레바논의 정치 파벌 사이에서 이미 존재하던 긴장관계가 증폭되면서 결국 1975년 발발한 레바논 내전으로 이어졌다. 1976년 이스라엘의 후원을 받는 레바논 기독교 무장세력인 팔랑헤가 베이루트 동부의 델 엘 자타르, 지르 엘 바사, 드바야 난민 캠프를

공격하여 완전히 파괴시켰다. 이 과정에서 팔랑헤는 델 엘 자타르 난민 캠프를 51일 동안 포위하면서 3,000 명 정도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대량 학살하였고, 이 캠프들 중 현재 존재하는 것은 오직 드바야 난민 캠프뿐이다.

1982년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다시 침공하여 8월 PLO를 축출하였고, 9월 베이루트를 완전히 점령하였다. 이때 팔랑헤 대원들이 사브라와 사틸라 난민 캠프를 공격하여 팔레스타인 난민들과 난민촌 거주 레바논인 1,000명을 학살하였고, 이스라엘은 이 학살 행위를 지원하였다. 이 전쟁에서 서 베이루트, 특히 사브라, 사틸라, 부르즈 엘 바라즈나 난민 캠프들에서 약 2,400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학살당했고, 시돈 난민 캠프들에서 1,100명, 티레 난민 캠프들에서 1,200명이 학살당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남부 레바논의 난민 캠프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 전쟁 과정에서 헤즈볼라가 창설되었고, 이스라엘-팔랑헤/팔레스타인 난민-헤즈볼라간의 연대와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2006년 7월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에서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공항과 도로, 다리 등 레바논의 핵심 기반시설을 파괴했다. 이것은 헤즈볼라 파괴를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와 대립각을 세우게 만듦으로써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사이의 내전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9일 레바논 총리 푸아드 사니오라는 헤즈볼라와의 연대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점령지 반환을 요구하였다. 내전을 유발시키려했던 이스라엘의 전쟁프로그램이 이번 전쟁에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의 설명에 있어 이스라엘과 서구 미디어들은 종파, 종교와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 레바논 영토 침공과 이로부터 야기된 주변 국가들 사이의 영토와 주민들과의 문제라는 핵심을 은폐시킨다. 이번 이스라엘 병사 생포에서 시아파 헤즈볼라의 요구사항은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10,000명의 팔레스타인인과 레바논인들의 석방이었고, 수니파라고 이름 붙여진 하마스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점령에 저항운동을 해왔다는 것이며, 수감자들 중에는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이슬람주의자들 보다도 더 많다. 또 현재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는 시리아는 사회주의자 정부다. 따라서 종파와 이념으로 현재의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을 설명할 수는 없다. 서구 미디어들은 시아파 이란이 헤즈볼라를 지원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대다수가 수니파로 구성된 아랍 국가들과의 패권 경쟁을 예상해왔다. 이것은 이번 전쟁을 중동 내에서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 구도로 이끌어 감으로써 친미 아랍 정권들과 이스라엘-미국의 연대를 은폐시킨다.

이스라엘의 점령에 대항하는 헤즈볼라와 하마스의 저항운동은 종파와 이념을 넘어서는 것이며, 세속주의자들 단체와도 연대를 해왔다. 실제로 2000년 9월 발발한 팔레스타인 2차 민중 봉기 때 헤즈볼라는 하마스뿐만 아니라 세속주의 무장단체인 탄짐에게도 무기를 제공했다. 2001년에는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으로 카슈사 로켓을 운반하던 헤즈볼라 대원 3명이 요르단에서 체포되었고, 이 때 헤즈볼라 지도자인 나스랄라는 “가능한 지역으로부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기를 보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라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는 특정 종파, 종교, 정치 이념의 문제를 넘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침략과 미국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한다.

IV. 하마스와 헤즈볼라 저항 운동의 토대

이러한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저항운동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포함하는 사회 저변의 대중 세력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이것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있었던 아랍 통합 움직임이 사회주의 운동에 그 토대를 두었던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사회주의 운동은 정권을 장악한 도시의 엘리트 계층이 주도함으로써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쉽게 약화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운동은 가장 강력한 사회 세력인 모스크를 중심으로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 사회봉사 등을 통해서 강화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대다수 가난한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전에 사회주의 운동에 참가했던 인사들도 이슬람주의 운동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수니파인 하마스와 시아파인 헤즈볼라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위해 이슬람 종파를 넘어서서 연대하고, 자유주의자, 사회주의자들과도 무기 원조 등을 통해서 협력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과 연대한 아랍 각국의 권위주의 정권과 이스라엘-미국의 지배에 대항하여 대중을 결집할 수 있는 이념적인 대안을 이슬람이라고 제시한다.

2006년 현재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정부 구성과 함께 이슬람주의자들이 의회와 내각에 입성한 것을 계기로 반이스라엘, 반미 저항 운동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은 19세기말 제국주의 국가인 영국의 침략에 대항하여 ‘이슬람 세계의 통합’을 제창하면서 출현하였으며, 1967년 전쟁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의 해방’이라는 대의를 놓고 권위주의적이며, 친 이스라엘 정책을 펴는 각국 정권들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국경을 넘어서 연대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요르단,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각국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이슬람주의자들이 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항하여 아랍 각국의 권위주의적 정부들은 자국 내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세력

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선거법 변경, 불공정한 선거구 획정 등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를 획책함으로써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가 이슬람주의자 지지자들인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들이 전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요르단에서는 2001년 실시되어야 할 의회 선거가 계속 연기되었다. 요르단 정부는 2003년 팔레스타인 출신 요르단인들 밀집 지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선거구 획정을 강행한 이후에 비로소 선거를 실시하였다.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서구 미디어들은 이 전쟁을 ‘이라크 전쟁’ 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전쟁의 주체를 숨기고 있다), 2006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을 앞세운 야만적인 공격으로 인한 참상이 중동의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중동의 민심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편으로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다. 이제 친미 아랍 정권들조차도 이 민심의 향배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V. 미래 전망

현재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정치 단체들과 하나의 협상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제시하고,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와 동의한 협상프로그램을 국제사회에 공개한 이 시점에서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에서 내전을 유도하고자 했던 미국-이스라엘의 전쟁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파벌들은 7월 25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고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석방하기로 한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중단하고 납치한 이스라엘 병사를 석방한다.’ 는 협상 조건에 합의했다. 헤즈볼라는 7월 28일 푸아드 사니오라 레바논 총리가 제안한 평화안을 수용하였다. 사니오라 총리가 제시한 평화안에는 남부 레바논에 국제평화유지군 주둔, 헤즈볼라의 최종적 무장해제, 국제적십자사를 통한 이스라엘 감옥의 수감자 석방, 유엔이 설정한 국경선 밖으로의 이스라엘군 철수, 남부 레바논으로의 난민 복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안은 또 이스라엘이 1998~2002년 남부 레바논 지역을 점령하면서 매설한 지뢰 지도를 레바논으로 인계한다는 것과 이 지역에 대한 레바논 정부 통치권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7월 29일 헤즈볼라의 ‘최종적 무장해제’ 와 관련하여 사니오라 총리는 “이스라엘이 국경안보를 원한다면,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세바 팜스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레바논 정부는 이스라엘이 세바 팜스를 점령하는 한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강제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즉 ‘이스라엘의 점령 종식’ 없이는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도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헤즈볼라와 연대하는 레바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졌다. 이스라엘 점령지에 대한 레바논 정부의 공개적인 반환 요구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점령지 반환 요구에 힘을 실

어쨌든, 1967년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 고원, 팔레스타인의 동 예루살렘과 서안, 가자에 이르는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요구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부에게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화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리 역시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이 제시한 협상에 동의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해체시키지 못한다면, 이란-시리아-헤즈볼라-하마스 측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고, 권위주의적인 친 이스라엘 아랍 정권들은 내부적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더불어 미국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테러리스트,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세력들을 합법적인 정치 세력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전혀 새로운 상황과 마주하게 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시리아 영토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끝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이스라엘 병사 생포를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포로 교환과 협상을 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해체시키기 위한 전쟁을 원했다. 이 전쟁프로그램은 이스라엘 군인 생포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9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이슬람권을 겨냥한 문명 충돌 담론을 비롯한 미국의 오래된 전쟁 전략과 2003년 이스라엘이 제시한 ‘로드맵’ 협상의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해체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2006년 7월 29일 유엔의 72시간 동안 헤즈볼라와의 휴전 권고를 즉각 거부하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인들과 헤즈볼라를 포함한 레바논인들의 협상안도 끝내 거부할 것이고, 수년간 준비한 이슬람주의자 분쇄를 위한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리아와 이란은 전쟁 범위가 자신의 국가들로 확대될까봐 숨을 죽이고 있다.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2006년 6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2006년 7월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리아나 이란에게 전쟁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최근의 전쟁들이 보여주는 것은 약소국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전쟁을 통한 야만적인 세계패권 강화 시도는 중동에서 균열이 시작된 것 같다.

2006/07/31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